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 ‘온 힘’

전북교육청, 생활안전·폭력예방·재난안전 등 7대 운영 계획 발표

초·중·고생 대상 자전거·PM 안전교육, 재난안전훈련학교 등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2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위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악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대 영역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및 PM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안전교육비 및 교구를 지원한다. 안전교육 컨설팅과 안전교육지원단 운영, 안전교육 전문 강사 양성 등을 통해 7대 영역별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학교와 위험 요인 발굴 개선 동아리를 운영한다. 이어,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과 유아안전체험장 등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남원 학생수련원 내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은 학생 안전 7대 영역을 체험하는 시설로, 내년 개관을 목표로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정읍 옛 읍관초등학교에는 유아안전

체험장이 조성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자녀가 학교에 잘 등교했는지, 수업 후 잘 하교했는지 학부모 스마트폰 알림 또는 문자 서비스로 알려주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운동장 등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가 설치된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도록 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까지 상반기

계약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26일 이틀간 교육연수원에서 상반기 계약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업무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계약업무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물품·용역 계약 실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계약 실무 △MAS(다수공급자계약) △인쇄물, 해외연수용역 계약 사례 △채권 압류 및 공탁실무 등이다. 이와 함께 청렴교육, 전북교육정책, 공공구매제도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계약업무 질의응답 ‘백문백답’ 제작 △일일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운영 △입찰 적격심사 표준 서식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 업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이번 연수는 계약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간호학과, 제65회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졸업생 66명 전원 합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합격자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이화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수도권 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에 취업을 확정된 상태다. 간호학과 김현영 학과장은 “국가고시 전원 합격은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제시한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비학점 교육과정 등 양질의 간호교육을 진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전문가형, 실무형, 모범형 간호인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의 산실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간호학과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보건교사 자격증(2급 정교사)을 발급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았다.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이 10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시설을 재정비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이 25일 진로특화지원사업 발대식을 열고 LG 희망품다 공모사업에 지정된 지역아동센터 5곳에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다문화부터 진로까지... 지역 아동 지원 확대

전북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진로특화지원 발대식

다문화지원 거점 5곳·아동 진로특화 지정 5곳에 현판 전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이 지역 아동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LG 희망품다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다문화지원사업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진로특화지원사업이 전북지원단에 후원된다. 이를 기념해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25일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10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여명이 참석, 현판 전달식과 함께 아동 비저너리(Visionary) 소통

및 교류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다문화지원사업 거점센터 5곳과 아동 진로특화지원사업 지정기관 5곳에 현판이 전달돼 해당 기관들이 앞으로 양질의 아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동 비저너리 소통 및 교류 활동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아이들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최현영 단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두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아동 서비스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운영위원장(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역 내 아동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도내 287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나답게 지원사업’, ‘진로특화지원사업’, ‘다문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올해 전북미래학교, 미래교육 중심으로 도약

전북교육청, 146개교로 확대... 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 모델을 집중 육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미래학교는 기초기본학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혁신을 실현하는 학교다. 이를 위해 올해 전북미래학교로 146개교가 운영된다. 중점과제로는 △기초·기본학력 기반 학력 향상 △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 수업혁신 실험 △에듀테크 및 AI 코스웨어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이 다. 자율과제로는 △IB 프로그램 △생태 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문예체육 등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각 과목별 교과중점 미래학교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업혁신을 위해 전 교원 대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장 승인 중심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연 30시간, 에듀테크

관련 연수 30시간 이상을 의무화한다. 전북교육청은 미래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교 및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전북미래학교의 연차별 운영 정책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미래학교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북미래학교가 대한민국 미래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영재교육 공감 자율연수

올해 영재교육 기본계획·업무 지침 안내 등이 주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전북 영재교육 공감 자율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지난해 영재교육 운영

결과를 돌아켜보고, 올해 새로운 영재교육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2025년 영재교육 기본계획 및 업무 지침 안내 △학생 주도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활용법 소개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국립군산대, 9년 연속... 학위·어학연수과정 등

국립군산대학교가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모두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증대학 평가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체계, 교육환경, 생활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평가에서 국립군산대학교는 학위과정 심사에서 13개 세부지표 중 유학생 공인언어능력을 제외한 12개 지표를 통과했으며, 어학연수과정 심사에서는 10개 지표 모두를 충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이며, 인증대학 선정에 따라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생

(GKS) 수확대학 자동 선정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인증대학 우대 참여 △한국유학종합시스템(28개 언어 지원) 및 교육부 공식 사이트를 통한 대학 소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립군산대학교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과정, 단기 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현장실습 기반 기업재용연계 공유전공(2+2) 유학생 모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외국대학교의 교류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국립군산대학교는 유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내달 1일자 현장 중심 맞춤형 정책 추진기구 개편

전북교육청, 빅데이터담당·초등장학담당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3월 1일자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 추진 기구를 개편한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담당과, 학력신장을 강화하기 위한 초등장학담당이 신설된다. 먼저, 정책기획과에 신설되는 ‘빅데이터담당’은 데이터 연구·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또 유초등특수교육과의 ‘초등장학담당’은 학력신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 기존 초등교육과정담당에서 학력신장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 정책 기조와 변

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해 일부 담당명칭도 변경된다. 미래교육과 방과후·돌봄복지담당은 늘봄·복지담당으로, 중등교육과 고교교육과정담당은 중등교육과정담당으로,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은 민주시민·환경교육담당으로, 행정과 행정관리담당과 기록통계담당은 각각 조직관리담당, 행정기록담당으로 바뀐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기구 개편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정일 조정을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업무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에도 필요시에는 교육청의 기구와 기능을 보완해 교육환경의 빠른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무학사 감사 제출 자료 대폭 축소 환영”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북지부는 25일 논평을 통해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교무학사 감사 제출 자료 대폭 축소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했다. 이날 논평에 의하면 전교조는 현장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관실과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중요한 학적, 성적 관련 부분의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동의하지만, 시기마다 공문을 통해 추진실적으로 제출했던 각종 자료들을 중복으로 조사해 수감 자료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85.6% 교사들

이 감사가 아닌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했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1%로 교무학사 감사의 부활을 불원하게 생각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의견이 반영돼 2025학년도에는 교무학사 분야 작성 요구 자료가 10%로 대폭 축소됐다고 했다. 대부분의 자료는 전산 시스템에 기록돼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장부를 확인하면 가능함에도 지일청마다 해당 학교에 제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교사들의 어려움이 컸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학적 관련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요구 자료를 삭제한 것을 다형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장은성 기자

생명산업 인재 양성 ‘맞손’

원광대, 중국 남경임업대학과 우호교류협정 체결

원광대학교와 중국 남경임업대학이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생명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양교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식은 지난 21일 원광대 황진수 부총장과 남경임업대학 장요금 부총장을 비롯한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 본관에서 이뤄졌다. 인사말을 통해 황진수 부총장은 “최근 중국 대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며 “원광대와 남경임업대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원과 학생 교류를 이어

나가고, 특히 원광대 글로벌대학 추진 과제에 맞춰 앞으로 중국 남경임업대학과 농생명바이오 분야 관련 교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장요금 부총장은 “학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양교가 교원, 학생 교류와 더불어 공동 학술 연구 및 학술대회 등 다양한 국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남경임업대학은 중국 정부가 세계 일류 대학과 전공 양성을 목표로 선정한 ‘쌍 일류 대학’ 중 하나다. /익산=이재춘 기자